경영 상태 반영 순위 변동 심해, 다이세이건설 ‘ 급부상 ’

- 2002 년도 시공능력평가, 현대건설 1위 고수 · 대우건설 ‘ 약진 ’ -

시공능력평가는 1962년부터 시행된 도급한도액제도가 1997년 7월을 기해 변경된 것으로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행 능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 자료가 된다. 실제로 발주기관에서는 공사 규모별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 등록 기준으로, 그리고 대¡/중소 기업 균형 발전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 공사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 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방식은 IMF 이후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 실적 비중을 낮추고 경영 상태 비중을 상향 조정해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 크게 좌우되던 과거와는 달리 경영 상태도 좋아야만 시공 능력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최상위 업체간 순위 변동 심해

2002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경영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아 순위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가 지난해보다 좋아져 시공능력평가 금액이 높아진 가운데¡fi빅5¡fl에서 지난해 순위를 유지한 업체는 2개사로 최상위 업체간 순위 변동이 심했다. 또한, 2개사가 상위 업체에 새로 진입하였으며, 50위권에서도 경영 상태가 좋은 업체의 약진으로 순위 변동이 심한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이번 시공능력평가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전제로 출자사가 채무에 대한 출자 전환 형태로 많은 지원을 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건실해져 이들 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현대건설 부동의 1위 고수

상위권에서는 현대건설이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지난해 3조 4,154억원에서 3조 5,667억원으로 높아져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출자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영 상태가 좋아져 지난해 3조 718억원에서 4,000억원이 높아진 3조 4,793억원으로 1위와의 격차를 1,000억원 내외로 줄여 시공능력공시제도 도입 후(구 도급한도액제도 포함) 가장 근접한 차이까지 접근하였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앞으로도 계속 1위를 고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대행 매출 부문의 매출액 계상에 따른 낮은 건설 매출 비율로 건설 실질 자본이 적어 토건 시공 능력이 지난해와 비슷한 3조 1,734억원으로 나타나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LG건설은 시공능력 금액이 2조 6,7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4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각각 2조 6,053억원과 2조 3,618억원으로 지난해와 순위 바꿈을 하여 5, 6위를 차지하였다.

포스코건설은 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가 모두 좋아져 지난해 13위에서 7위로 올라섰으며, SK건설은 공사 실적이 점차 줄어들어 시공 능력 금액이 다소 적어졌지만 8위를 유지하였다. 다이세이건설은 해외 공사 신고로 경영 평가액 제한이 해제되어 지난해 131위에서 9위로 급상승하여 10위권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한진중공업은 매출 둔화 등 경영 평가액 감소로 지난해 7위에서 10위로 간신히 상위권에 머무른 것을 비롯해 동부건설은 9위에서 15위, 두산중공업은 10위에서 14위로 상위권에서 벗어나 대조를 보였다.

30위권에서는 신동아건설이 차입금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 면제 및 출자 전환 등으로 재무 상태가 좋아져 42위에서 26위로 올라섰고, 고려산업개발은 흑자 전환에 따른 경영 평가액 증가로 지난해보다 2단계가 상승하여 턱걸이로 30위권에 들어섰다. 이에 비해 한신공영은 자본 잠식에 따른 경영 상태 악화로 25위에서 35위로 밀려났으며 (주)한화건설과 성원건설도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단계, 32단계나 떨어진 32위와 60위를 차지해 30위권에서 멀어졌다.

50위권에서도 권내의 업체간 순위 바꿈이 많은 가운데 지난해 토건 순위 75위였던 건영이 정리 채무의 일부가 출자 전환 또는 면제되는 등 경영 상태가 좋아져 38위로 뛰어올랐고 (주)신한이 지난해 51위에서 한단계 올라 50위권에 새로 진입하였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68위였던 (주)후지타가 58위로 급부상한 것을 비롯, 동일토

2002 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1 50 위)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명	토건시공능력	전년순위
1	현대건설(주)	3,566,740	1
2	(주)대우건설	3,479,379	3
3	삼성물산(주)	3,173,447	2
4	LG건설(주)	2,679,323	4
5	대림산업(주)	2,605,352	6
6	현대산업개발(주)	2,361,874	5
7	(주)포스코건설	1,833,703	13
8	SK건설(주)	1,567,062	8
9	다이세이건설(주)	1,462,403	131
10	(주)한진중공업	1,203,871	7
11	롯데건설(주)	1,106,394	15
12	삼성중공업(주)	1,077,165	19
13	쌍용건설(주)	1,008,600	11
14	두산중공업(주)	950,616	10
15	동부건설(주)	810,166	9
16	두산건설(주)	799,743	12
17	(주)태영	795,891	21
18	금호산업(주)	758,804	14
19	코오롱건설(주)	757,247	16
20	삼환기업(주)	707,257	22
21	삼성엔지니어링(주)	636,069	17
22	풍림산업(주)	635,939	20
23	(주)부영	601,749	23
24	벽산건설(주)	599,263	18
25	계룡건설산업(주)	542,290	30
26	신동아건설(주)	530,298	42
27	삼부토건(주)	523,707	27
28	경남기업(주)	511,023	29
29	고려개발(주)	483,833	26
30	고려산업개발(주)	469,107	32
31	대아건설(주)	430,873	37
32	(주)한화건설	424,336	24
33	금강종합건설(주)	422,722	34
34	극동건설(주)	415,252	44
35	한신공영(주)	413,628	25
36	한라건설(주)	363,460	36
37	금광기업(주)	361,466	35
38	(주)건영	337,112	75
39	(주)우방	335,014	38
40	임광토건(주)	323,160	41
41	(주)삼호	321,395	43
42	(주)신성	317,073	39
43	남광토건(주)	314,384	45
44	(주)중앙건설	312,971	47
45	신안종합건설	304,885	40
46	한일건설(주)	289,741	41
47	(주)동양고속건설	277,820	49
48	성지건설(주)	270,497	50
49	현대중공업(주)	261,759	31
50	(주)신한	247,380	51

건, (주)삼익, 영풍산업, 동원개발, 중흥건설 등이 대폭적인 순위 상승에 힘입어 10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충일건설산업, 성원산업개발, 흥화공업, 삼협건설, 제이알종합건설, 남해종합개발, 울트라건설 등의 순위는 작년보다 13¡›40단계씩 하락했다. 특히, 아남건설이 지난해 52위에서 305위로 내려앉은 것을 비롯해 (주)대원, 디에스건설, (주)경동, 강산건설, 영남건설, 동양메이저 등도 순위가 낮아져 100위권에서 밀려났다.

다이세이건설 급부상, 위협 존재로 부각

이처럼 금년 시공 능력은 무엇보다 업체의 경영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아 순위 변동이 심했다. 특히, 매출액 순이익률에 의해 업체의 경영 평점이 좌우된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추구한 업체의 시공 능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반면, 수익성을 무시한 무모한 경쟁에 의한 채산성 악화는 경영 상태를 악화시켜 시공 능력의 하향을 가져왔다.

다이세이건설의 10위권 진입도 눈에 띈다. 일본의 대표적 제네콘의 하나인 다이세이건설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31위에서 9위로 급등해 향후 공공 건설 시장에서 국내 유수의 업체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될 전망이다.

건설업이 주업종이 아닌 업체(건설 매출 비율이 50% 미만 업체)의 시공 능력이 대부분 떨어진 것도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한진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이 3, 4단계 떨어진 것을 비롯, 금호산업,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판매, (주)한보, 동양메이저, 대상(주), 현대모비스, 대우엔지니어링등의 순위가 4¡›37단계나 하락했다. 이는 저조한 공사 실적이 주요인으로, 이번 시공 능력에 반영된 실적이 1999¡›2001년 실적임을 감안할 때 IMF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자체 공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성 지표는 제외되어야

금년 시공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최대 쟁점이 되었던 것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방법을 개정하면서 실적 위주의 평가보다는 업체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에도 무게를 두는 평가로 전환함에 따른 일부 지표의 평점 계산에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건교부의 방침 결정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즉, 성장성 지표는 연도간 기복이 심해 평가 지표로는 불충분함에도 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경영 평가 지표에서 성장성 지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 상태의 반영 비중에 대한 다소의 제한이 필요하다. 지난해 평가 방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실적이 70% 대, 경영 상태가 20% 대, 기술 능력이 10% 대였던 것이 지난해부터 실적이 50% 대, 경영 상태가 40% 대, 기술 능력이 10% 대로 바뀌었다.

업체에 따라서는 경영 상태가 시공 능력의 95% 를 차지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해부터 경영 상태 반영 비중의 상향 조정으로 과거보다 경영 능력이 많이 가미됨으로써 기업의 전반적인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시공 능력이 ¡,건산법¡¸상 대분류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됨에 따라 업체의 전문화 유도에는 미흡하여 보다 세분화된 시공능력평가가 요구된다.

물론 당장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마련한 뒤 충분히 예고한 후 시행하면 건설업체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CJ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장